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산업안전보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재 수준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해가 단순한 업무상 과실 범죄가 아니라 기업범죄라는 인식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변호사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 움직임

최근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 또한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이천 물류창고에서 노동자 38명이 사망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산재 사망 사고의 양형기준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괴리된 양형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게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반해 현행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과실치사상범죄로 분류해 6월~1년 6월 징역 또는 금고형을 기본형량으로 하여 감경할 경우 4월~10월, 가중할 경우 10월~3년 6월을 형량범위로 권고하고 있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8월~2년, 업무상 과실치상은 4월~10월이 기본 형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내려진 가벼운 처벌

실제로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내려진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경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분석 연구'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결에서 2,932명 중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57.25%(1,679명)이었고 평균 벌금은 피고가 사람일 경우 421만 원, 법인일 경우 448만 원에 그쳤다.

이러 집행유예는 33.46%(981명), 선고유예는 1.71%(50명)이었다. 징역 및 금고형은 2.93%(86명)로 그 형량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원이 그동안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산업재해를 단순한 과실범으로 보아 경하게 처벌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부담하는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의 상당수는 안전보건기준만이라도 충실히 준수하였다면
경미한 부상으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이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재 강화 예상

하지만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재 수준은 사회의 인식 변화와 고용노동부의 양형기준 상향 요청 등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해가 단순한 업무상 과실 범죄가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소홀이나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에 기인한 기업범죄라는 인식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중요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부담하는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의 상당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안전보건기준만이라도 충실히 준수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경미한 부상으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이다.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

산재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재해자를 만나보면 사고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장치,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평생 꿈이었던 작은 분식집을 아들이 곧 차려줄 예정이었다는 60대 일용직 노동자는 '놀면 뭐 하나'면서 몇 차례만 더 일하겠다고 나간 공사현장에서 낡은 로프줄이 끊어지면서 떨어진 콘크리트 건물자재에 깔려 생을 마감했다. 양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하던 프레스기에는 덮개,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감응식 안전장치 등 수많은 방호장치의 존재가 무색하게 아무런 방호장치도 없었고 제대로 된 프레스기 안전교육이 실시된 적도 없었다. 지하 터널 공사현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생사를 헤매다 간신히 살아남은 노동자는 작업현장에 인화성 가스가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관리자가 가스누출 측정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보호구 제공 없이 산소 절단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라면 모두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

지금까지 만나 온 산재 유가족, 재해자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말을 했다. 그 어떤 비용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고 말이다.

사고 발생 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산업재해 유가족과 재해자

지금까지 만나 온 산재 유가족, 재해자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말을 했다. 그 어떤 비용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고 말이다. 산업재해 사건을 변호하면 할수록 예방이 사고 발생 이후 산재보상이나 손해배상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이미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그 무엇도 이들을 치유할 수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설령 가능하더라도 노동자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작업환경이 안전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는 또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하에서
산업안전보건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
언제 어디에서나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다. 그렇지만 양자는 분명히 다르다. 산업재해가 할퀴고 간 상처는 노동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지만, 산업안전보건은 노동자의 꿈을 실현시키는 자양분이 된다. 기업에게 산업재해는 숨기고 싶은 치부지만 산업안전보건은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얻는 밑거름이 된다. 무엇보다 산업재해는 이미 발생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지만, 산업안전보건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고 노동자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기업의 결단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앞으로 안전을 소홀히 한 대가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보다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가치인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공동체의 상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사업장 내 안전의무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방관해왔던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하에서 산업안전보건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 언제 어디에서나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